

재즈를 듣다 - 7

집시 스윙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영국에 ISTD(The Imperial Society of Teachers of Dancing)라는 단체가 있다. 보통 ‘왕립 댄스 교사 협회’라고 번역한다. 1904년 처음 결성했다. 오늘날 ‘댄스스포츠’라 불리는 커플 댄스 체계를 처음 만든 곳이다. 그 덕분에 영국은 지금까지도 댄스스포츠 중주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왈츠, 비엔나왈츠, 탱고, 폭스트롯, 퀵스텝 등 모던 5개와 룸바, 차차, 자이브, 삼바, 파소도블레 등 라틴 5개 총 10종목 중 어느 것도 영국에서 발원한 춤은 없다. 이 점이 이상해 영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한 댄스 교사에게 사석에서 질문하니,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운운하던 시절에 식민지 단물을 쪼쪽 빨아먹기 위해 지리, 자원, 인종,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를 망라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춤 분과도 포함돼 있었고, 그 결과가 후대에 10종목으로 정리됐다는 설명이었다. 이 주장은 음지(?)의 얘기라서 당연히 ISTD 공식 웹페이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 ISTD 첫 번째 단어인 ‘임페리얼(Imperial)’의 올바른 번역은 ‘왕립’이 아닌 ‘제국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그 시기에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서 새로운 문화가 태동하고 있음을 제국주의 국가가 감지했다는 확실한 근거이긴 하다. 춤과 음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댄스 교사들은 북아메리카에선 폭스트롯, 퀵스텝을 받아들이면서 빅밴드 재즈를, 자이브를 통해 초기 재즈와 부기우기를, 남아메리카에선 브라질 삼바, 아르헨티나 탱고, 그리고 쿠바에서 룸바와 차차 춤과 음악을 함께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1914년과 1939년에 각각 벌어진 1, 2차 세계대전으로 극심한 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에도 문화 교류는 중단되긴커녕 오히려 확대돼 갔다. 그중에서 특히 탱고와 재즈가 두드러진 듯하다.

1906년 아르헨티나 해군 소속의 사르미엔토(Frigate Sarmiento)라는 배가 프랑스 마르세이유항에 도착했다. 이 배에 ‘엘 초클로(El Choclo, 옥수수)’와 ‘라 모로차(La morocha, 가무잡잡한 여자)’ 악보가 함께 실려있었다. 덕분에 ‘엘 초클로’는 유럽 대륙에서 처음 연주된 탱고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파리에서 탱고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이른바 ‘5대 거장’ 중 한 사람인 프란시스코 카나로(Francisco Canaro) 악단의 원정 공연이 기획되었다. 1925년 3월 10일 카나로가 먼저 증기선에 몸을 실었고, 나중에 단원이 합류하여 아폴로 극장 로비인 ‘댄싱 플로리다’에서 공연을 한다. 단원들은 꽃무늬 블라우스, 부츠, 심지어 허리에 단검까지 착용한 가우초(카우보이) 복장을 했다고 한다. 공연이 성공하자 아르헨티나 신문에 “카나로가 파리에서 탱고를 공표하다(Canaro hace declaraciones en París, sobre el tango)”라는 헤드라인이 실렸다. 이걸 본 후안 칼다렐라(Juan Caldarella)라는 작곡자가 이 문장을 적당히 잘라 자신이 만든 곡 제목을 ‘파리의 카나로(Canaro en París)’로 정했다.

문화 교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시기에 메가타 츠나요시(目賀田綱美)란 일본 사람이 파리에 6년간 머물며 탱고를 배워 일본으로 돌아가 상류층을 대상으로 무료 댄스 강습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1947년 ‘안조가의 무도회(安城



‘범벅 서울’

아가씨 범벅 도련님 범벅 흐르는 끝에
미치는 롬바 때깁스럼다 네온의 범벅
젊은이들의 숨 쉬는 서울
떼굴(떼굴) 떼굴(떼굴) 범벅이 굴러간다
아 노래 부르자 사랑의 롬바
목청이 깨지도록 아하하하
술집도 한 철 꽃집도 한 철
노래 부르자 범벅의 서울

윙크의 서울 히트의 서울 새로운 리듬
열정의 탱고 혼란스럽다 재즈의 범벅
젊은이들의 비끼는 서울
떼굴(떼굴) 떼굴(떼굴) 범벅이 굴러간다
아 춤이나 추자 사랑의 탱고
이 밤이 새기 전에 아하하하
웃음도 한 철 눈물도 한 철
춤이나 추자 범벅의 서울

인조견 범벅 랑데부 범벅 날리는 레프
사랑의 왈츠 자랑스럼다 윙크의 범벅
젊은이들의 꽃 피는 서울
떼굴(떼굴) 떼굴(떼굴) 범벅이 굴러간다
아 노래 부르자 사랑의 왈츠
이 청춘 가기 전에 아하하하
잘나도 청춘 못나도 청춘
노래 부르자 범벅의 서울

家の舞踏會)’란 영화가 개봉했다. 여기에 탱고 추는 장면이 나온다. 이 또한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심지어 그가 함께 갖고 왔던 음반 자켓 때문에 한때 일본에선 탱고 발상지를 프랑스로 오해했었다고 한다. 당시엔 서양 문물이 일본을 통해 서울(경성)로 유입되는 사례가 흔했으므로 탱고도 비슷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 가수 남인수가 부른 ‘범벅 서울’이란 가사엔 롬바, 탱고, 재즈, 왈츠가 나온다. 이미 이런 음악과 춤이 경성에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다. 이듬해인 1937년, 여배우였던 복혜숙이란 분이 “경성에 판스홀을 허하라”라는 제목의 공개 탄원서를 총독부에 제출한 일이 있었다. “문명 도시라면 어디에나 있는 판스홀이

왜 경성에는 안 되는가?”란 내용이다. 2009년 서울 해화동에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 공연이 있었다.

많은 분이 ‘파리의 카나로’란 곡목에서 조지 거슈윈이 작곡한 ‘파리의 아메리카인(An American In Paris)’을 연상했을 것 같다. 실제로 이것이 훨씬 더 유명하다. 1951년에 진 켈리 주연의 뮤지컬 영화로도 제작됐다. 재즈 연주자로서 처음 유럽 땅을 밟은 ‘아메리카인’은 1차 세계 대전 중 미군과 함께 온 군악대 대원들이었다고 한다. 공식 기록으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1919년 런던의 팔라디움 극장에서 행해진 ‘오리지널 디시랜드 재즈 밴드(ODJB)’ 공연이다. 1920년대 중반엔 폴 화이트먼 악단 역시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즉 이 당시 유럽 재즈는 색소폰 연주자 시드니 베세(Sidney Bechet)를 제외하면 대체로 백인 연주자가 주도하였다. 초기 뉴올리언스 재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킹 올리버나 켈리 롤 모튼 같은 선구자들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더구나 미국에서 건너온 재즈 음반은 녹음 기술의 한계로 인해 실제 공연 때와는 다르게 악기 편성을 바꾸거나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럽인은 녹음된 연주를 오리지널 재즈라고 착각하기까지 했다. 당연히 유럽의 재즈는 미국인이 보기엔 아류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일지라도 드물게 꽃을 피우듯, 얼마 안 돼 미국과는 다른 유럽 고유의 재즈 연주를 확립한 천재가 등장한다. 집시 기타리스트인 장고 라인



장고 라인하르트 / 출처 : wikipedia.org



파리 블루스 / 출처 : amazon.co.jp



안젤로 드바 / 출처 : wikimedia.org



프랑스 핫클럽 5중주단 / 출처 : youtube.com

하르트(Django Reinhardt)다. 이를 ‘집시 재즈’ 또는 스윙 재즈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집시 스윙’ 또는 장고가 프랑스 마누슈(Manouche)라 불리던 집시 혈통이라서 ‘재즈 마누슈’라고도 한다. 어릴 때 심야 시간 TV에서 ‘토요 명화’나 ‘주말의 명화’를 시청했던 세대라면 1966년 개봉한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장고’를 잘 알 것이다. 이 주인공 이름도 그에게서 온 것이다.

1961년 개봉한 ‘파리 블루스(Paris Blues)’라는 영화가 있다. 폴 뉴먼이 재즈 트롬본 연주자로, 시드니 포이티에가 색소폰 연주자로 나오고, 루이 암스트롱이 카메오로 출연한다. 조연으로 등장하는 세르지 레기아니는 집시 기타와 전기 기타를 연주한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고의 연주는 재즈에 처음 전기 기타를 도입한 찰리 크리스찬(Charles Christian)을 위시해 조 패스(Joe Pass), 웨스 몽고메리(Wes Montgomery) 등 후대 기타리스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를 향한 오마주의 정점은 모던 재즈 퀸텟(MJQ)이 1953년에 발매한 명반 ‘장고(Django)’일 것이다. 2017년에는 ‘장고 인 멜로디(원제는 ‘Django’)'라는 전기 영화가 개봉했다.

장고 라인하르트는 정규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일자무식에 가까웠다. 당연히 음악 이론을 전혀 몰랐다. 오로지 눈대중으로 기타를 익혔다. 또한 타고난 보헤미안이기도 했다. 이 말은 ‘돈을 저축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한량 중의 한량이란 의미를 포함한다. 18세 때 화재 사고로 인해 오른발과 왼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는다. 다시는 기타 연주를 할 수 없을 줄 알았으나 마비된 4, 5번째 손가락을 쓰지 않은 채로 독자적인 연주법을

터득해 기적적으로 재기한다. 그가 남긴 녹음 중 대표곡은 단연 ‘마이너 스윙(Minor Swing)’이다. 이외에도 ‘스윙 42(Swing 42)’, ‘벨르빌(Belleville)’, ‘꿈속에서 널 보련다(I’ll See You in My Dreams)’, ‘눈물(Tears)’ 등 수많은 명연주를 남겼다. 실제 연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그리 많지 않다. 동료인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그라펠리(Stéphane Grappelli)와 함께 연주하는 ‘기다림 스윙(J’attendrai Swing)’이 불만하다. ‘프랑스 핫클럽 5중주단(Quintette du Hot Club de France)’은 두 사람이 주축이 돼 결성한 연주단체다. 이를 통해 집시 스윙의 악기 편성을 알 수 있다. 초기 재즈가 주로 트럼펫, 트롬본, 클라리넷, 색소폰,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 반면 집시 스윙은 바이올린, 솔로 기타, 리듬 기타, 베이스가 기본이고 간혹 클라리넷, 아코디언 등이 추가된다.

솔직히 말하면 필자가 재즈 감상에 한참 열을 올리던 무렵엔 집시 스윙에 별 관심이 없었다. 음량이 적은 어쿠스틱 기타와 바이올린 소리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었거니와 무엇보다 (절대다수 재즈팬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1950년대 이후 본격 등장한 밥(Bop)이야말로 진정한 재즈라는 편견과 독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르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Antonio Carlos Jobim)의 보사노바가 새삼 귀에 꽂혔다. 그 시기에 비로소 밥(Bop)의 굴레(?)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러자 곧 집시 스윙 역시 진심으로 좋아졌다. 보사노바를 들으면 특유의 ‘브라질 냄새’가 느껴지듯, ‘프랑스 핫클럽 5중주단’의 연주에선 고유의 ‘프랑스 냄새’가 난다. 또 하나, ‘프랑스 핫클럽 5중주단’에는 보컬이 없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결성돼 활동 중인 집시 스윙 밴드

중 상당수는 여성 보컬이 있다. 그러자 국물 요리에 글루탐산일나트륨을 추가한 것과 같은 감칠맛이 더해져 한결 듣기 편한 따뜻한 연주가 되었다.

영국 아서왕 전설에 나오는 아발론 섬에서 이름을 따온 ‘아발론 재즈 밴드(Avalon Jazz Band)’는 2012년 결성돼 뉴욕에서 활동 중인 집시 스윙 밴드이다. 기타, 바이올린, 아코디언, 베이스, 보컬로 구성돼 있고, 지금까지 5장의 음반을 발표했다. 장고의 집시 혈통을 밴드 이름으로 사용하는 ‘라부슈 마누슈(La Bouche Manouche)’는 런던에서 활동 중

인 퀸텟으로 재즈 가수 아이린 세라(Irene Serra)가 참여한 프로젝트 밴드인 듯하다. 2019년에 첫 음반이 나왔다. ‘핫클럽 드 프랑스(Hot Club de France)’를 패러디한 듯 보이는 ‘핫클럽 뒤 나스(Hot Club Du Nax)’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활동하는 집시 스윙 밴드이다. 역시 2019년에 첫 음반이 나왔다.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헤티와 재자토 밴드(Hetty & the Jazzato Band)’는 악기 구성에 있어 온전한 집시 스윙은 아니지만 그 또한 장고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보인다. 좀 더 ‘원조’에 가까운 음악을 원한다면 기타리스트 안젤로 드바(Angélo Debarre)의 연주를 추천한다. 🎸



아발론 재즈 밴드 / 출처 : wikimedia.org



라 부슈 마누슈 / 출처 : encoremusicians.com



핫클럽 뒤 나스 / 출처 : youtube.com



헤티와 재자토 밴드 / 출처 : sternbergclarke.co.uk



파리의 카나로



안조가의 무도회



범벅 서울



장고 라인하르트



장고와 그라펠리의
'기다림 스윙'



파리 블루스



아발론 재즈 밴드



라 부슈 마누슈



핫클럽 뒤 나스



헤티와 재자토 밴드



안젤로 드바

집시 스윙 관련 유튜브 링크 QR 코드